

하나님의 법: 2부: 거짓된 구원 계획

이방인들을 잘못 인도하려는 사탄의 전략

급진적인 전략의 필요성

마귀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수십 년 동안 교회는 유대 지역 유대인(히브리인), **디아스포라 유대인**(헬라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비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제자들 중 다수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이 그룹들과 가정에서 함께 모임을 가졌으며, 이는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 가르치시고 본보이신 모든 것에 충실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충실함

하나님의 법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읽히고 철저히 순종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λογον του Θεου (logon tou Theou) 즉 타나크, 구약성경]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누가복음 11:28).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지침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규례들을 부지런히 지키라 명령하셨나이다”(시편 119:4).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받아들여지는 “메시아의 오심이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하나님의 법을 지킬 의무를 면제해주었다”는 생각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원래 계획

항상 열려 있었던 이방인의 구원

문명의 역사 속에서 어느 때에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가 돌아와 죄 사함을 받고, 복을 얻고, 죽음 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신 적은 없습니다.

즉,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중 많은 이들이, 오직 예수님의 오심과 속죄의 희생을 통해서만 이방인들이 구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구원의 계획

진실은, 구약 시대부터 존재해 온 동일한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 당시에도 유효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차이는, 과거에는 죄 사함을 위해 상징적인 희생 제사가 과정의 일부였던 반면, 이제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한복음 1:29)의 참된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연합하기

이스라엘에 연합해야 하는 요구

이 중요한 차이를 제외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택하신 민족에 연합해야 합니다. 그 언약은 할례의 표징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 [נִפְיָחָר (nefikhar, 타국인, 외국인, 비유대인)], 여호와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려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들은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할 것이다”(이사야 56:6-7).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셨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이방인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으셨고, 항상 자신의 민족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시며 명령하셨다.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마태복음 10:5-6).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계획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과 복음서를 통해 드러내신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참된 구원의 계획은 단순합니다. 아버지의 법에 충실하려고 힘쓰는 자를 아버지께서 이스라엘과 연합시키시고, 죄 사함을 위해 아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법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것은 반역이며, 반역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짓된 구원의 계획

성경적 근거가 없는 교리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구원의 계획은 거짓입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예언자들과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교리(본질적 교리)는 다음 두 가지 원천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1. 예수님께서 자주 인용하신 구약성경(*타나크* — 율법과 예언서).
2.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하신 말씀.

중심이 되는 거짓 주장

이 거짓 구원의 계획을 지지하는 이들이 전파하는 중심 사상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메시지는 에덴에서 뱀이 전한 것과 동일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4-5).

만약 이 메시지가 참되었다면:

- 구약성경에 이를 설명하는 수많은 구절이 있었어야 합니다.
-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신 사명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선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구약성경에도 복음서에도 이러한 터무니없는 생각을 지지하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보낸 사람들

복음 외의 근거에 의존함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설교에서 예수님을 거의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어디에서도, 아버지의 법을 고의로 불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언적 지지의 부재

대신, 그들은 그리스도 승천 이후 등장한 인물들의 글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약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이후에 등장하여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가르칠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예언이 없습니다.

2. 예수님께서도 자신 이후에 누군가가 나타나 이방인들을 위한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언의 중요성

신적 권위의 필수 조건

하나님의 계시는, 유효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권위와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임을 압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의 예언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어떤 사람에 대한 예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후에 새로운 가르침을 전할 다른 인물들의 파견에 대한 예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충분하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등장한 모든 기록들은, 성경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보조적이고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이상의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예언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리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

복음서 네 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교리는, 그 출처나 오랜 역사나 대중적 인기에 관계없이 거짓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구원의 사건들

말라기 이후에 일어날 모든 구원과 관련된 사건들은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메시아의 탄생:** 이사야 7:14; 마태복음 1:22-23
-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것:** 말라기 4:5; 마태복음 11:13-14
- **그리스도의 사명:** 이사야 61:1-2; 누가복음 4:17-21
- **유다의 배신:** 시편 41:9; 스가랴 11:12-13; 마태복음 26:14-16; 마태복음 27:9-10
- **그분의 재판:** 이사야 53:7-8; 마태복음 26:59-63
- **그분의 무죄한 죽음:** 이사야 53:5-6; 요한복음 19:6; 누가복음 23:47
- **부자의 무덤에 묻히심:** 이사야 53:9; 마태복음 27:57-60

예수님 이후에 대한 예언은 없다

그러나, 예수님 승천 이후에 등장하여 다른 구원의 길—특히 하나님의 법에 고의로 불순종하면서도 천국에 환영받을 수 있는 길—을 전하는 개인에 대한 예언은, **성경 안팎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본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의 본을 따라 조형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이 명령은 마음이 약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며 영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헌신은 친구들, 교회, 가족으로부터의 반대와 핍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할레, 머리카락과 수염, 안식일, 금지된 고기들, 치치트와 관련된 계명들은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기로 선택한 자들은 마태복음 5:10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큼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보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